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이 경 업*

<차례>

- I. 머리말
- II. 지역문화의 현실과 교육
- III. 학교 교육과 문화교육
- IV. 지역문화 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 V. 지역문화 교육과 국어교육
- VI. 맺음말

I. 머리말

지역문화는 지역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지역민의 문화다. 지역문화 연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라는 장소의 의미보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선택하고 자기화한 것으로서의 지역적 동질성과 특성을 주목한다.¹⁾ 그러므로 현대의 문예 예술보다 전승 문화 속에 그 본질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관점에서 전승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고건축이나 사찰, 성곽 등과 같은 유형 문화보다는 구전, 세시풍속, 놀이, 축제 등과 같은 무형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늘어나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lky3528@hanmail.net)

1)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22쪽.

나란히 한다. 지역은 사람들이 모듬살이를 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지역은 서울의 변방이나 외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구체적 현장이자 소우주로서의 독립된 생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각기 다른 모습이듯이 지역문화도 지역의 생태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을 담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곧 지역문화는 중앙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문화가 아니며, 자율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폄하할 때 곧잘 쓰는 지방이란 말과는 다르게 지역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소홀히 취급되던 고장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새로이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므로 주체의 발견이라는 의미도 지닌다.²⁾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최근의 추세는 정치사에서 생활사로, 제도사에서 문화사로 그리고 중앙 문화에서 지역문화로 바뀌고 있다.³⁾ 지역이 지닌 주체성의 발견과 함께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역문화는 역사와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낸 삶의 문화이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동질성과 동류의식을 심어주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에는 지역적인 개성과 독자성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내력과 정신적 가치와 지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지역문화는 전승주체의 삶 속에서 잔존이 아닌 현행 문화로

2) 문화관광부가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면서 연 대토론회에서도 주체로서의 지역의 자리매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추진위원회, 『2001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 자료집, 2001.1.18-19.)

3) 이해준, 앞의 책, 12쪽.

4) 물론 이것은 정태적인 속성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현재 지역문화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문화 및 중앙 문화와의 교류, 중앙 중심의 문화 권력과 지역문화의 종속화, 전통문화의 약화, 전통문화의 가치와 문화 자원, 문화 산업과 문화 상품화 등등의 논의는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변동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존재한다. 때문에 그것의 계승 문제가 중요하며, 세대적 승계를 위한 교육이 강조된다. 더욱이 문화 전승의 토대가 허약하고 외래 문화의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의 현실에서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그 동안의 국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등의 영역에만 집중하였던 까닭에 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왔다. 언어와 문학을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에 그쳐서는 국어교육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 문화 교육의 실종을 불러 왔다는 반성에서 볼 때, 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지역문화의 계승과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국어교육과 관련지어 구전이나 민속문화를 통한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지역문화의 현실과 교육

우리는 소위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에 대해서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대국의 논리에 따른 종속화를 의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족 문화와 외래 문화의 교류에서는, 주체적 수용의 중요성과 함께 민족 문화의 독자성 유지와 개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버리고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세계화라고 할 수는 없다. 민족적인 것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한민족의 개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을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

이는 지역문화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문화의 총화가 민족 문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족 문화의 쟁점은 지역문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지역문화의 활력은 곧 민족 문화의 활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민족

5) 임재해, 『한국민속학과 현실 인식』, 집문당, 1997, 19쪽.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최근 문화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이 중요 논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 담론 그리고 최근의 요구에 따른 적용과 개발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문화를 당장의 쓰임새에 필요한 소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 산업의 측면에서 지역문화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곧 지역문화의 현실에 대한 이해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는, 앞서 본 대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사적 조류에 의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최근의 지역 축제나 상품화 논의 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지방 자치 단체마다 지역 축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이나 정체성 확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개 지자체의 홍보나 지역 개발의 목적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최상의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한결같이 문화적 성취보다는 관광 특수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축제를 축제답게 잘 하면 경제적 부산물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동체 성원들이 신바람나게 놀 수 있고, 지역적 특성과 독자성이 두드러졌을 때 관광객도 몰려들고 문화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나 영국의 에딘버러 예술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축제 등을 보면, 독특한 특성과 역사적 전통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전통의 토대 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이다.

지역적으로 특성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축제들을 급조해서는 관광 특수나 지역 개발을 기대하기 힘들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⁶⁾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나 교육 그리고 그 계승을 소홀

6) 지역 축제가 지닌 이런 문제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히 하고, 실적 위주의 행사나 이벤트를 해가지고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나 그에 따른 문화 산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문화 관련 현황을 보면 뭔가 요란하기는 하지만 내실이나 활력은 없어 보인다. 그 동안 지역의 전통 문화나 그 문화의 자생력을 전혀 돌보지 않다가 문화 산업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차별성 없는 문화만이 양산될 뿐이다. 그러므로 문화 자원의 막대한 이점을 강조하여 문화 상품론을 펴기보다 현재의 문화적 전승 상황과 실상이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만큼 활력이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현실은 오랜 문화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하고, 단조롭고, 편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의 커를 축적하고 공간적 다양성을 확보한 문화를 만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서구 문화 예술의 모방과 편향된 수용에 매달려 전통 문화의 원리나 방식을 계승하고 축적하기를 등한시켰다. 그래서 전통적 문화 생활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생활 양식의 서구적 획일화가 이루어졌으며,⁷⁾ 여러 지역문화의 차이점들을 ‘불충분함’, ‘변조’, ‘낙후’와 같은 열등감으로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⁸⁾

지역문화의 현실적 심각성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전통 문화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세대적 계승이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지역성을 띤 공동체 신앙이나 세시풍속, 민속놀이, 민속축제 등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몇 가지 종목이나 최근 만들어진 이벤트성 행사 정도가 그런 대로 격식을 갖춰 이루어지고 있

비교민속학회, 『한국지역축제문화의 재조명』, 1995.

김선풍 외,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임재해,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7) 임성운, “지방문화사론”, 『남도문화연구』 4,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93, 3-4쪽.

8) 임정희, “지역문화는 지역적 삶의 양식 실험”, 웹진 문화연대(2001-3.), <http://cncr.or.kr>.

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격식도 일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자생력이 문제가 된다. 민속조사를 가서 보게 되면 노인들만이 시골을 지키고 있으면서 당제를 모시고 줄다리를 하며 들노래나 설화를 구연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풍물을 칠 젊은 이들이 없어 매년 하던 마당밭이가 끊기게 되었고 놀이판의 활력도 줄어들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청년회의 나이 제한이 50세였다가 최근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상여를 매고 장례를 치를 사람 숫자를 생각해 조정된 것이라고 한다.⁹⁾ 60대 노인이 청년회 회원이라고 할 만큼 농어촌의 지역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없다. 초상이 나도 운상할 사람이 적어 상여를 트럭에 싣고 가고, 상여소리 부를 사람이 없어 녹음기를 들고 가는 일도 있다. 농어촌 공동체가 와해되어가고, 누대로 전해진 문화를 이어받을 젊은이들이 없어 그 계승이 어렵게 된 것이다.

전통문화의 약화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생활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근대화와 서구화를 혼동한 결과 서구적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삼아 획일화를 빚은 측면도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서가 담겨 있고,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온 문화가 그대로 단절되는 것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최근 지역의 지적 재산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대에 지역문화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기도 하다.

지역문화 전승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집중의 산업화로 인해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교육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로 변화시켜 가는 노력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몇몇 지역의 경우 경제적 활력과 더불어 문화적 전승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문화 계승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¹⁰⁾ 또한 학생들이 학교 동아리 활동

9) 전남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 일대 민속 조사에서 이런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2000년 5월 15일-20일 필자 현지조사)

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를 배워 발표를 하거나 주민들과 축제를 벌이는 경우도 있고, 시민 단체·주민 조직 등이 지역의 환경 문제나 생업과 밀착된 축제를 기획하여 열고 있는 경우도 있다.¹¹⁾ 이와 같은 예들은 지역문화가 계승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지역문화 현실에 비춰볼 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지역문화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문화적 계승은, 결국 문화의 획득과 전승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교육은 삶을 전통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재생시키는 것이라야 한다.”¹²⁾ 라는 말처럼 교육을 통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는 결국 전승 주체의 삶의 방식이자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존속이 아닌 계승이 중요시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III.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

지역마다 개성 있는 문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

- 10) 대표적인 예로 여주시 남면 안도나 보성군 벌교 대포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월 보름의 마을축제가 다른 지역보다 활기차게 연행됨을 볼 수 있다.(나경수·표인주·이경엽, “남면 안도리의 당제”, 『남도민속연구』 제3집, 남도민속학회, 1995 참고.)
- 11) 해남군 문내면 동리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제1회 사람과 구렁이 가족의 안녕을 위한 대보름 민속한마당 잔치”를 열었다(2001년 2월 6일). 그리고 보성 벌교 여자만에서 꼬막과 조개 잡이를 하는 어민들의 조직 선민회(船民會)에서는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를 열었다(2001년 1월 18일).
- 12) June, Nash.,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 11(전경수, 『환경친화의 인류학』, 일조각, 1997, 71쪽에서 재인용.)

역문화의 토대가 허약해진 것은 계승을 위한 교육이 없어서다. 민속 사회에서는 삶 속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 서당이나 서원같은 '제도 교육'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실질적 교육은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생활과 노동 속에서 생업 기술을 익히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의 규범과 질서, 사람들의 관계도 배우게 되고 의례와 축제 속에서 문학, 예술을 즐기고 배웠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의 기능이 소홀히 취급되고, 삶의 문화를 승계하는 일과 교육을 별개로 다루게 되었다. 즉, 학교에서 다루지는 내용만을 교육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도 입시를 위한 지식 교육 위주로 나아가다 보니 문화 교육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문화가 활기차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과 쉽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교육에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생활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규격화된 일상과 입시 교육이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나머지는 여분의 일로 여겨진다. 중고생들이 소풍이나 수학 여행을 갔을 때 부르는 노래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TV 등에서 배운 유행 가요다. 또 즐기고 노는 춤과 놀이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춤이고 놀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학생들의 생활 문화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그렇지만 그 지식은 시험을 통해 평가되고 측정되는 것으로 그친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게 사는 기준과 문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다 쏟아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문화나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실천하는 문화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입시 교육의 파잉 속에서 문화 교육이 실종하게 되고,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이 어긋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¹³⁾

13) 임재해, "한국 민속문화의 교육적 의미와 기능", 『교육철학』 21집, 한국교육철학회, 1999, 67-72쪽 참고.

이제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이 별개로 따로 가서는 안 된다. 문화 교육에서는 문화에 대한 설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의 문법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터득하도록 하는 문화적 삶을 배워야 한다. 지금처럼 문화에 대한 설명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문화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험에 필요한 문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게 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화 체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그 문화의 주체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과 취직 등을 성공의 조건으로 삼았던 까닭에 지역을 잘 가꾸고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더욱이 학교 밖의 활동을 교육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집안이나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고장에 축제가 있을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보다 "학생들은 가서 공부나 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화 현장을 참관하고 학습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문화의 전승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전승돼온 문화가 지역의 학생이나 젊은이들과 무관한 노인들의 것처럼 세대간의 문화적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문화의 현장 또는 지역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시회 관람이나 축제 등에 참여하여 보고 듣는 기회가 자주 있으니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생들이 동원의 대상으로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학생들이 그 문화의 전승자이거나 잠재적인 계승자라는 것을 생각치 않고 행사의 격식에 필요한 동원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어떤 지역의 축제에서는 개회식 때 운동장을 가득 메웠던 지역 중고생들이 개회식이 끝나자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본 행사에서는 주민 100여명 미만이 큰 운동장에서 행사를 관람하는 일도 있었다.¹⁴⁾ 학생들이 학교

14) 여수시의 지역축제인 '진남제'에서 본 모습이다(1999년 5월 4일-5일 현지조사).

별로 동원돼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사의 인솔을 받아 학교로 돌아간 뒤에 남은 주민들만이 행사를 지켜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특정 사례라기 보다는 흔히 보여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지역의 젊은이나 학생들이 지역문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문화를 학생들과 상관 없는 또는 가치 없는 과거의 문화 정도로 계속 취급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탐구하게 하는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의 일차적인 기능은 문화의 전승이고, 이차적인 기능은 전승된 문화의 토대 위에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다.¹⁵⁾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온 문화 속에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집단적 슬기와 지혜가 담겨져 있다. 문화의 창조는 새로운 것에서 찾기보다 오래된 지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보다 생산적으로 해낼 수 있다. 그 동안 지역문화를 소홀히 다루고 교육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 계승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식 정보 산업은 이런 토대 위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문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문화 콘텐츠 개발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컴퓨터를 배우고 익히는 것만을 정보화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견이다. 지역문화를 배우고 살리는 것이 시대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¹⁶⁾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IV. 지역문화 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지역문화 계승은 지역에 전승되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고건축이나 사찰, 성곽 같은 유형 문화에서라면 보존

15) 김인회, “이념론: 왜 가르치는가”, 『교육학개론』, 문음사, 1984, 39쪽.

16) 이경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기본 방향”, <http://www.moe.go.kr>

과 활용을 뜻하겠지만, 무형 문화의 경우는 형태의 보전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하여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한다는 것은 그대로를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로 살아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요소들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 개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중앙 문화나 대중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창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기반 위에서 민족 문화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민족 문화의 전통을 잘 갈무리하고 있는 공간이 지역문화 현장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있을 때 민족 문화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은 자신의 삶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부터 먼 단위의 이웃 마을과 시군 단위의 고장으로 이해를 확대하고, 이어 고장을 넘어 국가와 민족 문화에 대한, 그리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마을은 문화의 실제적인 생산과 수용,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마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큰 범주의 문화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정작 가까운 역사와 문화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사의 큰 흐름에 대한 지식은 공부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삶터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까닭에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했다.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전망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그 중 한 방침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달라진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17) 임재해, “지역문화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구상과 전망의 명암”, 『한국민속학과 현실인식』, 집문당, 1997, 330쪽.

18)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

특성에 맞는 개성적인 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 실현에 중요 과제가 되었다.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이로써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된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식을 가진 동질성 있는 학생들을 길러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지역문화사를 통해 우리 문화 바로 알기를 하고, 주제적인 세계화·정보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달라진 교육 환경과 시대사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지만 담당할 교사와 교사의 교육 의지, 교육 자료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계획서에 그치고 내실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과 주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에 대한 실무 연수와 전문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연구, 지역문화 교과서 편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⁹⁾ 지역 단위로 지역문화 자료를 조사·정리·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무 연수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 지역문화 교과서를 편찬하여 이를 가지고 초·중등학교에서 지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긍정적인 역사 의식과 지역 의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 발전과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 교육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 지역별 대비와 그것을 통한 창조적 발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전체 문

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이경환, 앞의 글, 3-4쪽.)

19) 이해준, “지역문화를 살리는 문화정책과 문화교육”,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0, 67쪽.

화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다운 독자적 창조성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은 판소리와 풍물굿[농악]의 개성이 강하고 경상도 지역은 탈춤과 별신굿의 전통이 강하다. 또한 진도 지역은 서화에 대한 전통과 민속예술의 특징이 유난히 부각되고, 나주나 광산, 함평 등지는 벼농사와 관련된 들노래와 고싸움같은 민속이 잘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지역문화의 개성적인 특징을 지닌 것이며 지역민의 동질성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해석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때문에 지역 단위의 자료가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전남을 예로 든다면 그 동안 시군 단위의 문화유적 지표 조사 작업이 이루어져 개괄적인 자료들이 파악되었지만 현상 이상의 사실이 조사되고 정리되지 못한 형편이다.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집이 발간되고²⁰⁾ 그것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과 배경이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문화 자료집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민간 연구 조직과 연구자들이 많은 편이므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그 성과를 지역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지역문화 연구 단체와 교사들의 활동을 연계시키고, 그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면서 교육 내용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V. 지역문화 교육과 국어교육

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면 구전이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²¹⁾ 지역에서 전승되는 언어와 구비 전승

20) 예를 들어 화순군과 여천시 등에서는 지표 조사 이후에 민속 분야의 자료집이 따로 발간되었다. 최덕원 외,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여천시, 1995., 남도민속학회,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화순군, 1998.

21) 지역문화는 한 분야만으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종합적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연대 모임이나 여러 분야 교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팀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어 교사가 구전이나 민속을, 지리교사가 지리와 환경을,

자료, 풍속, 민속놀이,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전통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삶의 배경과 지역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참여 학습을 통해 문화 전승의 주체로 삶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수업에서 지역문화를 교육할 때 강조해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활 언어와 구비 전승에 담긴 삶의 문화

국어 수업 시간에 속담을 가르치면서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나라.” “얇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 간다.”라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구들이 없어지고 보일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굴뚝이 사라졌으니 나무로 불을 때고 굴뚝에 연기가 나는 현상 자체를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입식 부엌이 일반화되면서 부뚜막도 없어졌기 때문에 고양이가 부뚜막에 앉아 있다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상황과 함께 이해되고 풀이되던 속담의 기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게 되었다.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했던 것이다.

지역의 언어 문화에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지명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 따로 따로 인식하지만 산과 산, 산과 들, 들과 강 어느 것도 분절되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연속적 자연에 각각 이름을 붙여 분별한다. 산, 강, 들, 마을 곳곳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 자체가 생활 경험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지명에는 자연 환경, 생활사, 풍속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음악교사가 국악이나 민요를, 미술교사가 미술사를, 지역 출신 교사나 윤리교사가 지역의 성씨나 인물 유적 등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이해준, 앞의 책, 76쪽).

지명이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언어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지명은 시대에 따른 문물의 발전상을 반영하여 주기도 하고 또한 정신문화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 한 지역의 전래 지명에는 민족의 이동 경로나 언어의 역사가 내재함은 물론 사람이 살아온 역정과 문화, 여기에서 생성된 온갖 전설이나 민속 등의 정보가 짙게 담겨 있어서 그 지방의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²²⁾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지명은 우리말의 보고를 찾고 변천 역사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소중하지만, 삶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한 고장의 전래 지명에는 그 고장 사람들만이 경험한 애환과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으므로 향토성과 애향성이 매우 짙은 구심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²³⁾

섬사람들을 예로 들어 본다면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특유의 생활상이 지명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김과 미역을 채취하고 양식하는 완도 사람들은 마을 해안의 바위나 언덕 등에 세세하게 이름을 붙여 분별하는데, 그것은 해안의 구획과 좋은 어장의 확보가 생업 활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사람들은 마을 해안을 ‘섬장내’, ‘목섬장내’, ‘순천금이장내’라고 하여 세 구역으로 나누고, 곳곳에 용두리끝, 꿀빠미, 작은꿀빠미, 된개목, 개목, 씹새머리, 진개넙, 배장살이, 명지개, 명지포, 호랑바위, 탄목섬 등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²⁴⁾ 해조류 채취와 관련된 생활의 필요 때문에, 지명을 통한 공간 인식이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지명에 대한 학습을 통해, 태어나서 자라온 삶의 터전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지역의 공간 하나 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와닿게 될 것이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자연스

22) 이돈주, “땅이름(지명)의 자료와 우리말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1031-1032쪽.

23) 이돈주, 위의 논문, 1032쪽.

24) 2001년 7월 8일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현지조사.

럽게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땅이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식과 토착 지식 등을 이어 받아 자연과 삶의 공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주나 역사 경험 등과 연관된 지명이라면 가까운 역사로서의 지역사나 생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잘 담고 있는 언어 표현으로 ‘물때’라는 것이 있다. 물때란 바닷물의 변화에 기초한 시간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다. 어민들은 바닷물의 이동과 주기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보름 단위로 그 주기를 분할하고 있다. 그리고 물이 센 때와 약한 때를 구분하여 고기잡이 형태나 해산물 채취 시기에 적절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물-두물-서물……-열물-한객기-대객기-아침조금-조금-무수”식으로 15일간의 물때 이름을 붙이고, 물의 세기에 따라 ‘사리’(서물부터 열물)와 ‘조금’(한객기부터 두물)으로 나누어 어로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사리 때에는 안강망이나 덤장 어업을 하고, 조금 때에는 유자망이나 미역 채취를 하는 식이다. 해양 생태계의 조건에 따라 지역마다 고기잡이 방식이 달리 발달하는데 그것에 맞춰 물때라는 언어적 인식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안강망을 주로 하는 어민들에게 사리를 중심으로 한 시간 인식이 발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물때는 어로 작업의 적절성을 가늠하게 하는 어업력(漁撈曆)이며, 모든 생활의 지침이 되는 생활력(生活曆)의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처럼 일반인들에게 바다는 늘상 비슷해 보이지만 어민들은 세분화시켜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이나 기후에 대한 언어 표현에도 나타나는데, 이런 생활 언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구비문학은 그들의 생생한 삶의 언어와 문학이다. 민요를 예로 들어본다면, 논일이나 밭일, 고기잡이 등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 상여가 나가고 마당뵈이를 할 때 부르는 의식요, 신명과 흥을 내어 놀 때 부르는 유희요, 어느 것 하나 생활 문화 아닌 것

25) 이경엽, “도서지역 당제의 전승환경과 생태학적 적용”, 『역사민속학』 제1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224쪽.

이 없다. 이런 민요 학습을 통해 지역의 생활 문화를 가까이서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비문학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문화의 생산과 향유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²⁶⁾ 민요나 민속예술 등에서는 자기 정서를 자신의 노래와 춤, 놀이 등에 담아 표현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부른 노래를 그대로 따라 배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나 연극도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나와 있는 작품을 보는 것으로 그치고 주체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다. TV에 나오는 가수 중에는 립싱크라고 하여 노래 부르는 흉내만 내고 녹음된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상품화된 대중 문화의 향유 방식에서 정서 표출의 주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민요는, ‘더운 날 일하니까 힘들다’든가, ‘시집살이 힘들어 못하겠다’든가, ‘여럿이 모여 일하니까 흥이 난다’ 등을 자신들의 정서와 신명을 가지고 노래한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노래하는 주체의 현실적인 삶을 담아 다양하게 부르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비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 소비자, 구입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자와 향유자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구비문학의 지역성과 집단적 사유

구비문학은 지역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전승된다. 가면극을 예로 들어 보면, 전국의 가면극은 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른 양상을 띠고 전승된다. 황해도의 가면극으로는 봉산탈춤, 은울탈

26) 구비문학 교육이 지닌 효용성을 ①예술세계에 대한 체험의 긴장과 복합 ②구조에 대한 무의식적 경험과 습득 ③창작과 향유의 일체 ④내면화의 성취와 원동력 ⑤민족문화와 민족정서의 호흡으로 나누어 설명한 나경수 교수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지역문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만을 따로 언급했으므로, 구비문학 교육의 전반적 문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나경수,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제3집, 남도민속학회, 1995).

춤, 강령탈춤, 해주탈춤 등이 전하고, 경기도에는 송파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가 전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동부에는 수영야류, 동해야류 등이 전하고, 경남 서부에는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진주오광대, 가산오광대 등이 전한다. 이외에 계통을 달리하여 안동 하회에 별신굿 탈놀이가 있고, 강릉에 관노가면극, 함경남도 북청에 사자놀음이 전승된다. 이처럼 가면극은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고, 가면이나, 과장, 등장 인물, 극적 진행 등도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지역적 차이와 특성, 배경 등을 학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요를 보면,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은 까닭에 들에서 무리 지어 일할 때 부르는 노래보다, 아라리, 메나리, 소모는 노래 등 혼자 하는 노래가 훨씬 발달해 있다. 특히 소 두 마리를 몰면서 밭을 가는 소리는 강원도에서만 들을 수 있다.²⁷⁾ 이에 비해 전라도는 드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으므로 논농사 노래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발달해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더 세분화된 특징을 보이는데, 전북의 경우 동부 산간지역, 서부 평야지역, 남동부 산간분지지역, 서해안 섬지역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산간지역은 밭이 많은 까닭에 밭노래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분지는 산간보다 들노래가 많고, 서부 평야지역은 들노래가 짜임새 있게 불려진다. 그리고 도서지역은 어업노동요가 많이 전승된다. 그리고 전남은 논매기노래의 특징에 따라 세 권역으로 나뉘어진다. 서부 평야지역은 긴소리권, 서남해 도서지역은 절로소리권, 동부 산간지역은 산아지타령권이라고 한다.²⁸⁾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들노래가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설화 중에서는 특히 전설에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다. 전설에는 전승 지역 사람들의 인성이나 역사·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리산, 무등산, 천관산 등에 대한 전설

27) 김진순, “민중들의 일상생활과 민요”, 2000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54쪽.

28)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0, 10-15쪽.

과 해안 도서지역의 대도형(大盜型) 전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²⁹⁾ 전설에 남도 사람들의 집단적 인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전설에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세 산신이 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결과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이 전라도로 귀양오고, 무등산산은 벼슬을 받지 못하고 천관산신도 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도전설에서는 바닷길을 통해 올리는 진상품이나 세금을 실은 새미선을 털어 지역민을 구휼했다고 한다. 이같은 전설에는 의롭지 못한 정권 또는 위정자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종하는 지역 사람들의 집단 의식을 이어오고 남겨 한 기층적인 인성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장르별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라도에서는 판소리나 풍물굿이 타지역보다 발달한 반면 가면극은 전승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탈춤과 별신굿이 발달한 반면 판소리는 약한 편이다. 또한 무가를 지역별로 보면, 서정무가는 전라도 지역이 특별히 두드러지고 서울 지역에도 약간의 자료가 나타나지만 여타 지역에는 별로 없는 편이다. 서사무가의 경우는 경상도나 서울, 제주도 지역이 두드러지고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무가에서 이런 양상은 곳의 전통과 음악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인데 선율 음악을 주로 쓰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서정성 높은 무가가 발달하고, 리듬 음악이 강조되는 경상도, 제주도, 서울 등지에서는 짜임새 있는 사실이 발달한 것을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선율 음악적인 것이 동반되는 까닭에 서정무가도 불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무가의 지역성은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무속적 배경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문학적이나 음악성이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발달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⁰⁾

이처럼 지역문화에는 지역성이 잘 담겨 있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동질감을 공유해왔다. 해당 지역에서 보이는 특성은

29) 나경수, “전설과 남도인의 인성”, 『남경 박준규 박사 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1998.

30) 이경엽,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1998.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된 결과이므로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롭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정 문화권에서 전승되어 온 문화는 그 지역의 제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적용해 온 것이므로 지역문화 공학적(地域文化工學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단순히 과거적 유산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이며, 문화 생성과 창조의 문법 및 문화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³¹⁾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목하여 지역문화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실천적 전망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민족 문화의 저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판소리에서 말하는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것도 지역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분화 발전이고, 풍물굿에서 좌도나 우도라고 하는 것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이것을 보면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민족 문화의 전승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 개성이 살아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생태적 자연 인식과 공생적 삶의 회복

지역문화 교육을 통한 환경·생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절박성과 환경 오염, 지속 가능한 삶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산업화의 역기능과 기술 문명의 폐해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탓으로 자연의 생명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 자원을 착취했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의 생명성을 인정하고 생태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민속문화 속에 담겨 있는 자연 친화적 세계관을 주목

31) 나경수,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8, iv쪽.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문화는 자연의 질서와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지배의 문화’가 아니라, ‘자연을 섬기며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살아온 적응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민속문화의 자연 친화적 세계관을 우리 시대에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³²⁾

민속문화에서는 자연을 위하고 섬긴다. 굿에서는 자연물에 신비로운 힘과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섬긴다. 이런 점에서 굿은 원초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다르다. 자연을 섬기는 사고에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한다는 공생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 때문에 부모가 죽어 묘소를 만들 때에도 먼저 산신에게 고한 다음 삼질을 한다. 그리고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땅을 건드리는 것을 경계하며 만약 그것을 어겨 불행이 닥치면 ‘동정쩍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여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사고 체계에서는 결코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과 상보적인 조화를 유지하고 더불어 공생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충제(蟲祭)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충제는 말 그대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병충해다. 그래서 논밭에서 병충해가 가장 심할 때인 음력 6월에 마을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제관을 뽑고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산신에게 병충해 방제와 풍년을 빌었다. 그런데 벌레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니까 벌레를 없애 주기를 축원하면서도 “그 종자만은 남겨 주시오.”라고 빌었다. 해약만을 준다고 여기는 벌레에 대해서도 종자까지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는 사고로 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태계의 구성 체계를 생각하는 생태적 인식이 담겨 있다.

32) 임재해, “민속문화의 자연 친화적 성격과 현대적 계승”,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직위원회, 1998, 5쪽.

이러한 총제는 농약이 도입되고 일반화되면서 사라졌다. 과학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제는 미신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런데 농약은 농산물의 안전을 해치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살충제로 쓰이는 BHC나 DDT 등은 토양이나 물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과 물풀 등에 흡수된다. 그러다가 먹이 연쇄를 따라 상위 단계로 옮겨가면서 더욱 농축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³³⁾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이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과학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하늘과 땅을 섬기고 하찮은 미물의 생존까지 염려하는 세계관이야말로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속문화에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의미의 공생성이 있다.³⁴⁾ 민요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들에서 부르는 농요는 특히 그렇다. 들노래 가운데 혼자서 독창으로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모내기노래와 논매기노래에서 주로 쓰이는 교환창이나 선후창처럼 두 패가 나뉘어 주고 받거나, 앞소리꾼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는 식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더불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을 하면서 들노래를 부르는 것은 일의 능률을 올리고 일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뿐 아니라 논밭의 농작물이 노래를 듣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구실까지 담당한다. 그러므로 민요는 일하는 사람과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이런 까닭에 농약을 쓰지 않는 대안 농업의 한 방식으로 '천적농법'이 주목받고 있다. 딸기 농사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점박이응애'를 퇴치하기 위해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넣어 무공해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 '그린 머슬(green muscle)'이라는 아프리카산 버섯은 농작물을 공격하는 메뚜기떼를 죽이는 '천연살충제' 구실을 하고 있다. 버섯균은 감자 딱정벌레를 잡아먹기도 한다. 곤충 암컷의 생식 분비물인 '페르몬(pheromone)'은 과수원에서 꽃과일에 기생하는 나방을 퇴치하는 데 쓰인다. 이런 해충 방제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농약을 내쫓는 해충의 천적",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1. 8. 1.)

34) 임재해, "민속문화의 자연 친화적 성격과 현대적 계승", 11-12쪽

그리고 가면극을 보면 놀이를 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없다. 놀이꾼은 자기들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경꾼들에게 말을 걸며 구경꾼들을 탈판에 끌어들이고자 한다. 구경꾼들 또한 놀이패가 저희들끼리 탈춤을 추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구경꾼들이 나서서 추임새를 넣고 탈판에 적극 개입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놀이 대목이나 뒤풀이에서는 함께 나가서 놀이꾼과 어울려 춤을 추며 신명풀이를 한다. 이처럼 탈춤을 추는 광대와 구경을 하는 관객이 더불어 탈춤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판소리도 마찬가지다.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고수가 북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지만 그 둘만 있어서는 소리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소리를 듣는 청중이 있어야 하고 소리꾼의 소리에 “얼씨구” “좋다” 하는 추임새를 넣어야 소리가 제 맛이 난다. 그래서 소리꾼들은 자기 소리를 알아주고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할 맛이 난다고 얘기한다. 흥과 신명을 더불어 나누는 문화적 공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민속문화는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문화이지만 미래의 문화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전승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전통이 지닌 집단적 슬기는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밑천이 될 수 있다. 헬레나 노르베르-호지는 인도 북부의 ‘라다크’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온 문화적 전통을 <오래된 미래>³⁵⁾라고 부르고 있다. 미래의 대안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민속적 삶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역문화에 담겨 있는 자연 친화적 삶과 공생적 세계관을 주목해야 한다. 문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문화를 형성시켜가야 한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은 과학보다 문화이다. 문화는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일정한

35)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녹색평론사, 1996.

형식으로 틀지워 놓고 있기 때문이다.³⁶⁾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의 전통을 대안 문화의 가치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4. 참여 학습과 지역문화 계승

지역문화 교육은, 지역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고 삶의 문화로 계승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오늘의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계승의 문제는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지역문화가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창조적으로 살아 나도록 하는 것이 계승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에 의한, 문화를 통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여 학습이 필요하다. 문화의 현장에서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게 하여 문화 전승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 학습은 문화를 쉽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다. 학생들도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문화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 축제나 행사에 동원되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의 문화 행사에 주체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그 문화적 전통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문화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서의 태도 등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의 시기가 학기와 겹치지 않게 조정된다든가,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행사를 치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학습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축제다. 축제는 지역문화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 교육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될

36) 임재해, “민속문화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 기능”, 『환경과 민속』, 비교민속학회, 2001, 38쪽.

수 있다. 요즘 만들어진 축제는 덜하지만 전통 축제는 특히 종합예술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역에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진 상태다. 때문에 초·중등 학생들의 축제 참여가 지역문화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래의 지역 축제에는 세대 간의 단절이 없었다. 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지는 큰 줄다리거나 고싸움 등에서는 ‘고삿줄’ 또는 ‘골목줄’이라고 하여 어린이들의 작은 줄다리기판이 벌어지고 그것이 청소년들의 놀이로 발전하고 이어 청장년들의 판으로 커지고 고을 단위의 큰 굿판으로 확장되었다. 영산 줄다리거나 장흥의 보름 줄다리기, 광산 고싸움 등은 모두 이렇게 진행되던 축제였다. 전통 축제가 지닌 이러한 연행과 전승의 원리는 문화 교육의 참여 학습에서 주목할 원리라고 생각된다.

일본 오키나와의 하에바루(南風原町), 요나바루(与那原町) 등지의 줄다리기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주민의 일원으로 자기 고장의 축제에 참여하여 연령별 역할에 맞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깃발을 들고 줄을 메고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³⁷⁾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민요와 음악, 춤, 놀이 등을 익히고 주인으로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대동놀이를 연출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익혀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남녀노소가 자기 고장에서 큰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출향 인사들까지도 축제 기간에 고향에 돌아와 축제를 즐기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다. 지역문화의 자연스러운 계승 속에서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생활 언어와 구비전승에 담긴 삶의 문화, 구비문학에 반영된 지역성, 자연 친화적 삶의 회복 문제 등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참여 학습은 이와 같은 지역문화의 의의를 알

37) 1997년 7월 29일-31일 필자 현지조사.

게 하고, 더불어 지역문화의 약화된 전승 현실도 보게 하고 새로운 전환의 필요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문화의 현실에서 볼 때 문화에 대한 학습, 문화에 의한 학습, 문화를 통한 참여 학습은 지역문화 교육과 계승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지역문화는 역사와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낸 삶의 문화이다. 이런 지역문화가 중앙 문화, 외래 문화의 유입과 문화 변동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 문화 전승의 현실에 비춰볼 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이 어긋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학교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실종된 것은 입시 교육의 과잉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게 하여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현단계로 볼 때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특히 구전이나 민속문화를 통해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문화를 교육할 때 강조해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생활 언어와 구비 전승에 담긴 삶의 문화

지역의 언어 문화에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 문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식과 토착 지식 등을 이어 받아 삶의 공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비문화를 통해, 문화의 생산과 향유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이 문화 소비자, 구입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자와 향유자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자신

의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비문학의 지역성과 집단적 사유

지역문화에는 지역성이 잘 담겨 있다. 해당 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적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적응된 결과이므로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롭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지역문화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실천적 전망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민족 문화의 저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민족 문화의 전승을 풍부하게 한다. 지역적 개성이 살아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문화에 담긴 생태적 자연 인식과 공생적 삶

국어교육에서는 특히 민속문화 속에 담겨 있는 자연 친화적 세계관을 주목할 수 있다. 민속문화는 자연을 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의미의 공생성이 있다.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역문화에 담겨 있는 자연 친화적 삶과 공생적 세계관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의 전통을 대안 문화의 가치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참여 학습을 통한 지역문화 계승

지역문화 교육은, 지역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고 삶의 문화로 계승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오늘의 문화를 풍부하게 창조해 갈 수 있다. 계승이란, 지역문화가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의 현장에서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게 하여 문화 전승의 주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언어 생활과 구비전승에 담긴 삶의 문화, 구비문학에 반영된 지역성, 자연 친화

적 삶의 회복, 참여 학습과 지역문화 계승 등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지역문화 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교육과 관련된 국어교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국어교육을 지역문화 계승의 실천적 관심과 연계해서 파악하고, 또 국어교육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법, 교과서 편찬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선풍 외(2000),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 김인회(1984), “이념론: 왜 가르치는가”, 『교육학개론』, 문음사.
- 김진순(2000), “민중들의 일상생활과 민요”,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 나경수(1995),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 제3집, 남도민속학회.
- 나경수(1998), “전설과 남도인의 인성”, 『남경 박준규 박사 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 나경수(1998),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 나경수·표인주·이경엽(1995), “남면 안도리의 당제”, 『남도민속연구』 제3집, 남도민속학회.
- 나승만(1990),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남도민속학회(1998),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 비교민속학회(1995), 『한국지역축제문화의 재조명』.
- 이경엽(1998),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 이경엽(2000), “도서지역 당제의 전승환경과 생태학적 적응”, 『역사민속학』 제1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이경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기본 방향”, <http://www.moe.go.kr/>

- 이돈주(1998), “땅이름(지명)의 자료와 우리말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 이해준(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임성운(1993), “지방문화시론”, 『남도문화연구』 4,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 임재해(1997), 『한국민속학과 현실 인식』, 집문당.
- 임재해(1998), “민속문화의 자연 친화적 성격과 현대적 계승”,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직위원회.
- 임재해(1999), “한국 민속문화의 교육적 의미와 기능”, 『교육철학』 21집, 한국교육철학회.
-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 임재해(2001), “민속문화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 기능”, 『환경과 민속』, 비교민속학회.
- 임정희(2001), “지역문화는 지역적 삶의 양식 실험”, 웹진 문화연대 (2001-3.), <http://cncr.or.kr/>
- 전경수(1997), 『환경친화의 인류학』, 일조각.
- 조용환(1999), “한국 문화교육의 정책과 실상”, 『교육철학』 21집, 한국교육철학회.
- 최덕원 외(1995),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여천시.
- 추진위원회(2001), 2001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 자료집, 문화관광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1996),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녹색평론사.

<초록>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이 경 업

지역문화는 역사와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낸 삶의 문화이다. 지역문화의 전승 현실에서 볼 때 실천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따라서 교육이 중요시된다. 문화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이 글에서는 지역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 지역문화 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지역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어교육에서는 특히 구전이나 민속문화를 통해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 생활 언어와 구비전승에 담긴 삶의 문화, 구비문학에 반영된 지역성과 그것의 재창조, 자연 친화적 삶과 공생적 세계관의 회복, 참여 학습과 지역문화 계승 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국어교육을 지역문화 계승의 실천적 관심 연계해서 살펴보고, 또 국어교육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지역문화, 문화교육, 국어교육, 지역문화 계승, 지역문화의 활성화

<Abstract>

Regional Cultur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Gyong-yeop

Judging from the reality of the regional culture transmission, the interests for implementation and educational aspects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things. Culture is not limited to knowledge itself, but can be regarded as a power to enliven people's lives and to make them lead their own lives independently.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culture education and to examine the school education, culture education, regional culture education, and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regional culture education is also examined.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especially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word-of-mouth or folk cultures, a new direction of culture education can be built. The culture of the daily lives, included in the living languages and oral tradition, the regionalism reflected in the oral literature and its re-creation, the recovery of nature-friendly lives and the world view of coexistence, and the participating learning and regional culture succeeding are the main tasks for the activ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interests for practices of regional culture traditions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related together. It also contributes to make the area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extending to a new study direc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gional cultures, culture education, the activ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regional culture traditions